인민의 아들 김정은동지

차　　례

머 리 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정치지도자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녀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이끄는 령도자, 정치지도자가 인민들로부터 인민의 아들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자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숭고한 뜻을 지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헌신적인 령도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인민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어야 한다.

조선인민은 인민과 혈연의 정을 맺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직한 아들을 대를 이어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민족이 높이 모신 또 한분의 위대한 인민의 아들이시다.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여온 지난 10년동안의 나날은 장구한 인류사에 비해볼 때 그야말로 한순간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이 나날에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그이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가시는 인민의 아들, 절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어울리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양로원, 새집들이한 로동자들의 집도 찾아주시는 그이, 조선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시며 인민사랑의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고 뜻밖의 자연재해로 고생하는 인민들생각으로 잠못이루시며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신 그이의

거룩한 모습은 천만인민의 망막속에 눈물로 새겨진 인민적령도자의 참모습이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젊음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선을 신비하다고 할만큼 놀라운 힘과 속도로 부흥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경모하고 우러르며 조선인민을 부러워하고있다.

1.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위인

1) 이민위천에 기초한 인민관

옳바른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대중이 지닌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하여 그들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만이 절세의 위인으로 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을수 있다.

인민을 보고 대하는 옳바른 견해와 관점, 인민을 무한히 존중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지 못한다면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로, 참다운 인민의 아들로 될수 없다.

정치적령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첫째가는 징표가 바로 옳바른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인민관을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인민관의 기초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사상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민위천이란 말그대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것은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주체 105(2016)년 10 월 10 일 조선로동당창건 71 돐이 되는 뜻깊은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뜻이 어려있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것을 요구하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견해와 관점, 립장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근본핵으로 한 위대한 인민관을 지니시였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충복, 인민의 충직한 아들로서의 숭고한 귀감을 보여주고계시는것이다.

인민을 위해 단 몇해사이에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조국의 험한령 다 넘으시며 위험한 하늘길, 배길에도 서슴없이 오르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렇듯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였기에 조선인민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인민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자기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마음을 지니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최고정화를 이룬다.

오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사회의 모든 재부를 철두철미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리도록 하고계시며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고 향유하도록 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이 땅에 펼쳐진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들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철저히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2)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들에 대한 믿음을 최상최대의 높이에서 간직하신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주체적견해와 관점에 토대하시여 조선인민에 대한 믿음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가장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시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아껴주신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인민이라는 믿음, 달리는 살수 없는 수령의 인민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다.

나라마다 인민은 있어도 수령의 인민으로 불리우는 인민은 오직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인민뿐이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으로 정히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믿음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최상최대의 믿음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신 인민이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안광에 비껴든 인민의 모습은 수령님모습, 장군님모습이였다.

주체 101(2012)년 2월 19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애도기간 우리 인민들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너무도 비통하여 피눈물을 흘리였으며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찬바람이 부는 맵짠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군님의 태양상열에서 호상을 섰다고, 애도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장군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을 얼마나 순결한 량심으로 받들어왔는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훌륭한 인민을 우리 장군님께서 키우시였다, 바로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인민을 키웠다고 말할수 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우시고 내세우시고 아껴주신 조선인민이 이 세상 제일 좋은 인민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피눈물의 나날 더욱 공고히 하시였으며 인민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력사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였다.

나는 몇명 안되는 일군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철저히 광범한 인민대중,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아껴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간직하신 인민에 대한 믿음이고 신조이며 의지이다.

조선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은 다음으로 조선인민은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이며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맞받아 뚫고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민족대국상의 나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서한을 내려보내주신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이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로작들과 연설들, 명령, 서한, 지시들,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들은 어느것 하나도 인민과 관련되지 않은것이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민이라는 표현이 미처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날에 하신 말씀들을 다시한번 되새겨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입니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였으며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입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위대한 인민!

경애하는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가신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였으면, 얼마나 하늘처럼 귀중히 여기시였으면 조선인민을 위대한 인민이라고 그토록 정을 담아 부르고 또 부르시였겠는가.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값높은 부름에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낳은 위대한 인민답게 이 세상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 강용한 인민으로 되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하늘같은 믿음도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7 월 13 일 일군들에게 우리 당은 지난 시기 남을 믿고 혁명을 한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을 믿고 우리 인민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 돐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변함없이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로 연설을 마치시였다.

바로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최상의 높이에서 간직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기에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나는 세상에 대고 우리 인민이 제일 위대한 인민이라는것을 자랑하고싶다고, 나는 이런 훌륭한 인민과 함께 혁명하는것을 긍지로 생각한다고, 나는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불타는 강도 서슴없이 건느고 험한 가시밭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인민의 수호자,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려고 한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그 위대한 신념, 절대적인 믿음은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세인을 경탄시키는 신비스러운 기적을 낳게 하고있으며 이 땅우에 날에날마다 충성과 위훈을 수놓아갈수 있게 하고있다.

조선인민을 그토록 중시하고 존중하며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오늘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위대한 력사가 계속 이어지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한없이 신뢰하며 따르는 이 혼연일체의 위력은 이 세상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최강의 무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믿음은 인민대중을 혁명동지로 보고 대하시는 위대한 동지적믿음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동지, 전우라는 말은 상하관계나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사상과 뜻, 순결한 정과 의리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피와 살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사이에 불리워지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동지, 전우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라고 하시였다.

주체 104(2015)년 10 월 라선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더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수만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때까지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인간애, 동지적믿음의 세계가 이 나라 북변에 세계사진촬영의 력사에 없는 장엄한 대화폭을 펼치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이 어려있는 가슴뜨거운 화폭이다.

평범한 병사로부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다 경애하는 그이의 품에 안겨 그이의 한없는 사랑과 의리속에 살고있다.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많으면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혁명가의 참된 삶을 누려나갈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론이다.

2. 인민에 대한 뜨거운 혈연의 정을 지니신분

1) 친혈육의 정

(1) 혁명의 원로, 혁명선배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인민에 대한 뜨거운 혈연의 정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혈육의 정은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데서 표현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집단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혁명의 1세, 2세들을 혁명의 원로들로 존대하고 내세워주시며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이라고 값높이 불러주시며 그들에게 뜨거운 혈연의 정을 부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정을 다 안겨주시며 그들이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로서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인생의 로년기를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정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정된 **김정일**훈장을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제일먼저 수여하도록 해주신것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있고 장군님의 위대한 존함으로 불리우는 훈장을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수여하도록 하신데는 바로 항일의 로투사들을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첫세대들로 온 세상에 떠받드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깃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 대회들과 경축행사들에 항일혁명투사들을 불러주시였으며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였다.

조선민족사에서 성대하게 거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 돐경축 열병식때에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로투사들을 초청하여 열병식을 편히 앉아서 볼수 있게 특별히 좌석을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열병식이 끝난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실 때에는 초대석에서 인사를 올리는 로투사들을 알아보시고는 걸음을 멈추신채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정히 손을 저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태양절을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되는 경축대표들과의 기념사진촬영에도 로투사들을 몸소 불러주시고 그들을 혁명선배라고 존대해주시며 자신의 가까이에 위치를 정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상 로투사들의 건강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은정어린 생일상도 보내주시였다.

주체 104(2015)년 11 월 어느날 항일혁명투사 리을설동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통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누구보다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그를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의 장의를 국가장의로 하고 전군에 조기를 띄우도록 하시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고인의 령전에 보내시고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우였던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것은 조선로동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하시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이 당과 조국, 혁명에 무한히 충실했던 로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신념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은 정녕 령도자이기 전에 위대한 인간, 위대한 인민의 아들의 모습이였다.

하기에 리을설동지는 생전에 자기의 회상실기에 이런 글을 남기였다.

《우리 수령님 한평생 키우시고 우리 장군님 한생 아끼신 이 나라 인민들을 뜨거이 안아 사랑과 정을 다해주시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정녕 그이는 믿음과 사랑, 숭고한 도덕의리를 가장 뜨겁게, 가장 열렬하게 지니신 인민의 위대한 아들이십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렇듯 뜨거운 정이 있어 혁명의 1 세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그이께 충직할 결의로 가슴불태우며 오늘도 후대들에게 백두의 기상과 넋을 굳건히 심어주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을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로병들에게 인생의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고계신다.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에 전쟁참가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각이하다.

전쟁에서의 공로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것은 세월의 이끼속에 묻히고 로병이라는 존대는 고사하고 조롱과 멸시속에 가슴아프게 생을 마치는것이 오늘날 대부분 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로병들의 처지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세계정치사를 돌이켜보아도 전쟁로병들을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로병들에게 인생의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는 령도자는 없다.

오직 인민과 혈연의 정을 맺으시고 혈연의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품이 있어 조선의 전쟁로병들의 삶은 그토록 빛나고있는것이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극진한 보살피심은 그 어떤 도덕의리나 령도자로서의 의무감에서만 오는것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그이께 있어서 전쟁로병들은 바로 그이와 혈연의 피줄을 이은 친혈육들이다.

전쟁로병들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혈연의 정은 해마다 전승절이 오면 온 나라의 전쟁로병들을 자신의 가까이에 불러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주체 101(2012)년 7월 앞가슴에 훈장 번쩍이며 평양으로 모여온 전쟁로병들의 모습은 조선의 인민들, 새 세대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9 돐을

맞으며 경축행사를 진행할것을 발기하시고 대표선발사업으로부터 전쟁로병들을 평양에 올려오는 문제, 그들의 숙식조건과 참관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문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안겨줄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행사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다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승절경축행사 참가자들이 원수복을 입으시고 전승광장의 단상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대표증을 지니고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시고 황홀한 축포야회도 관람하도록 하시였으며 로병대표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이께서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며 로병대표들에게로 다가오시여 열광적으로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로병대표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실 때 전체 로병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인생의 크나큰 영광을 맞이한 전체 로병대표들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전쟁로병대표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경축공연도

관람하시였다.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울려퍼진 《결전의 길로》, 《진군 또 진군》과 같은 전시가요들, 화면에 모셔진 전승열병식광장주석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 수령님의 육성록음들을 통하여 로병대표들은 포연탄우속을 헤치던 가렬한 싸움의 나날들과 전승의 광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못잊을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며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생일을 맞는 로병대표들에게 생일상까지 마련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로병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또한 그들이 떠나는 날의 일기조건까지 헤아려 일정을 하루 미루어 떠나보내도록 해주시였으며 환송도 크게 조직하도록 하시는 등 행사조직을 마지막까지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전쟁로병들을 단순히 조국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부모로, 친혈육으로 귀중히 여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속에 안긴 조선의 전쟁로병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복받은 로병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실뿐아니라 전사회적으로 그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당에서 전승절을 크게 쇠자고 하는 목적의 하나가 바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기풍을 세우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전쟁로병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이며 혁명선배들이라고, 전쟁로병들은 전쟁때에도 위훈을 떨치였고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각이한 초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여 많은 공로를 세웠다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하며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들이 조국앞에 세운 빛나는 위훈을 후대들이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평범한 늙은이들을 혁명선배, 웃사람으로 내세워주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계신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으며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며 로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것이 전인민적인 감정으로, 하나의 사회적흐름으로 되고있는 조선에 년로자들의 사랑의 보금자리인 평양양로원이 멋들어지게 일떠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3(2014)년 6 월 24 일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자신께서는 평양미림학원과 양로원을 잘 건설하여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걱정없이 생활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잘 돌보아주는것이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평양양로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설계로부터 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이듬해 3 월 온 나라 인민이 즐겁게 맞고 보내는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날에 평양시양로원(당시)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설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양로원의 자태가 완연히 드러났다고 만족해하시였다.

평양양로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양로원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명절날휴식도 없이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후 완공된 평양양로원에 또다시 나오시여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주체 104(2015)년 8 월 1 일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합각지붕을 떠이고 조선식건축물로 솟아오른 평양양로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 완공된 평양양로원을 돌아보시며 무엇보다 기뻐하신것은 양로원의 모든 요소요소를 보양생들의 신체적,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잘 꾸려놓은것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조선인민과 혈연의 정을 이으신분이시기에 새롭게 일떠선 건물을 돌아보시면서도 그의 현대적미감과 웅장함보다도 명실공히 늙은이들을 위한 새집으로서 모든 요소요소들이 늙은이들의 신체적,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꾸려졌는가를 먼저 보시였으며 그렇듯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완공된 평양양로원을 돌아보시면서 또한 기뻐하신것은 양로원이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함께 명당자리에 일떠선것이였다.

명당자리에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함께 세워주시여 부모잃은 아이들이 서로 친형제되여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한 친부모의 정은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옆에 평양양로원도 꾸려주시여 부모잃은 원아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살뜰한 정을 주시였고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에게는 귀여운 손자, 손녀들의 밝은 모습을 안겨주시여 그들이 여생을 젊음속에 보내도록 해주시였다.

현대적이면서도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고 모든 조건과 환경이 늙은이들의 특성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된 건물, 이 세상 가장 따스하고 살뜰한 정이 넘쳐나는 평양양로원은 정녕 세상에 둘도 없는 늙은이들의 보금자리인것이다.

(2) 나라의 왕으로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혈육의 정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시고 세상에 부럼없는 사랑과 은정을 다 안겨주고계시는데서 표현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울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것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정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사랑,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은혜로운 어버이사랑이며 인간의 정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친어버이의 정이다.

조선의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육친적사랑과 혈연의 정은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후대관의 숭고한 발현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후대관은 미래를 사랑하고 미래를 키우는것이 혁명가의 마땅한 본분으로, 의무로 된다는 혁명적인 관점이고 립장이다.

주체101(2012)년 1월 24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크시였지만 설명절을 맞으며 만경대혁명학원원아들을 먼저 찾아주시였다.

학원에 자욱을 새기신 그 첫 순간부터 명절을 맞으며 가볼데가 많지만 위대한 장군님을 애타게 그리워할 학원학생들을 생각하여 만경대혁명학원부터 찾아왔다고, 올해 설은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인데 내가 학원학생들의 부모가 되여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고 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은 전체 만경대혁명학원원아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졌다.

경애하는 그이를 모신 기쁨으로 손이 시린줄 모르고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 원아들이였건만 몸소 하나하나 손을 내리워 꽉 잡아주신 그 살뜰한 손길,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어든 볼도 손수 비벼주시며 울지 말고 사진을 찍자고, 울면 사진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다정한 음성은 원아들의 마음속을 봄날과도 같이 따뜻이 녹여주었다.

원아들의 밥먹는 모습도 지켜보시며 무엇을 좋아하는가 허물없이 물어주시고 손수 간장의 맛까지 가늠해보시는 자애로운 모습에서 원아들은 친부모의 정,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정을 온넋으로 절감하였다.

혁명의 미래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이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하여 만경대혁명학원원아들은 더욱 훌륭히 꾸려진 보금자리에서 친부모의 정을 날마다 가슴뜨겁게 받아안으며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골간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설명절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원아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이어 창전소학교, 중앙동물원,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등을 쉬임없이 찾고찾으시며 후대사랑의 자욱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보내주신 은정넘친 유희기재들을 받아안은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조국땅 방방곡곡 꽃봉오리들이 터치는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였다.

주체 101 (2012) 년 6 월 3 일부터 8 일까지 기간에는 조선소년단창립 66 돐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창립절을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전례없는 성대한 축전으로 경축할것을 발기하시고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2 만여명이나 되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아들딸들을 수도에 초청하여 여러날동안 다채로운 경축행사들과 참관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나라는 없었다.

사실 어른들도 아니고 보호자의 손길을 항시적으로 요구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수도에 데려다 경축행사를 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시고 아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신 그이이시기에 이토록 큰 규모의 경축행사도 조직진행하실수 있은것이다.

조선소년단창립 66 돐경축행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의 결정체이며 후대사랑의 최고정화였다.

두메산골과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소학교, 중학교들과 분교들에서 경축행사대표들이 선출되여 평양에 초청되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따사롭게 비쳐드는 사랑의 해빛아래 특별렬차와 비행기, 자동차들이 대표들을 태우고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그들에게 안겨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대표증은 새 세대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정화이며 소년단대표들에 대한 최대의 믿음의 표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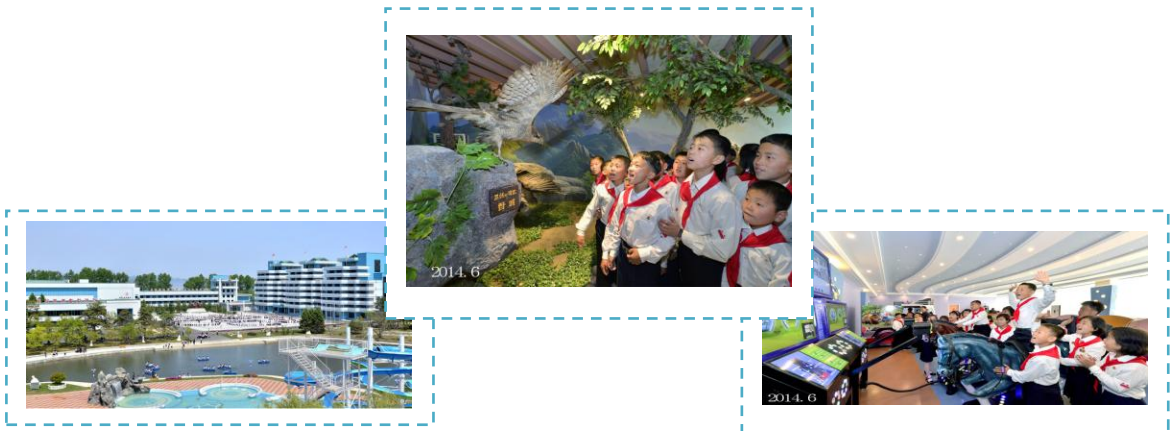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 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축하연설을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음악회도 관람하시였으며 기념촬영도 하시고 은정어린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선소년단창립 66 돐경축행사는 조선로동당의 미래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것인가를 만방에 과시한 대서사시적화폭이였으며 이 땅우에 후대사랑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온 나라 인민과 소년단원들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과 강성번영할 래일의 참모습을 시위한 대축전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다 안겨주고계신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억만금을 기울여서라도 아이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이다.

주체 103(2014)년 4 월 20 일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개건한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것처럼 보인다고, 마치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같이 멋있다고 하시며 옛날 왕들이 살던 궁전도 이 소년단야영소에는 비기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조선로동당의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들의 호텔, 행복의 궁전으로 꾸려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이날 야영소의 여러곳을 빠짐없이 다 돌아보시며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혈연의 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도 어리여있다.

주체 104(2015)년 11 월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이 훌륭히 꾸려진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내부가 정말 멋있다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겠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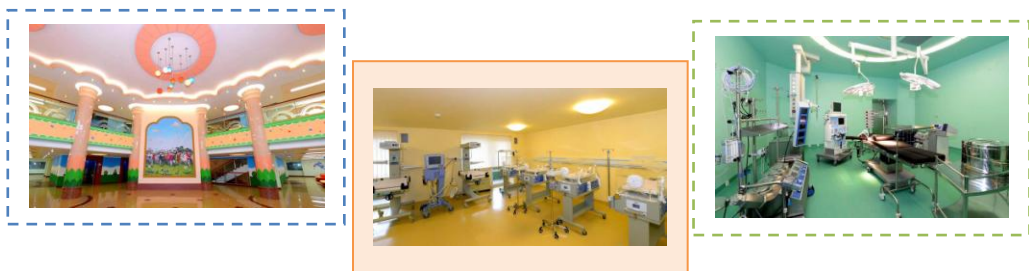
특히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극장이 전문예술단체들에서도 부러워할만큼 훌륭히 꾸려진데 대하여 더없이 기뻐하시며 나라의 왕들이 리용하는 극장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아들딸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그 아이들이 리용하는 이곳을 왕들이 리용하는 곳으로 불러주시는 그이이시였다.

오랜 시간 궁전을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소조운영에 필요한것들은 다 제기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과외교육교양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어줄바에는 그쯘하게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설비들을 갖추어주는것은 후날에 가서도 어차피 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지금 착실하게 해놓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곤난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먼 후날에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함성으로 높이 울려퍼질것이라고, 자신께서는 그에 대하여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시며 최상최대의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렇듯 숭고한 후대관으로 하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부모잃은 아이들에게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며 그들이 한점의 그늘없이 자라나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뜨거운 혈연의 정을 기울이고계신다.

원아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어 그들의 얼굴에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부모잃은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열과 정이며 그이의 숭고한 후대관이다.

주체 103(2014)년 2월 3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시 애육원과 육아원을 찾으시였다.

TV로만 뵈옵던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을 뜻밖에 뵈옵게 된 원아들은 마치 먼곳에 출장가셨던 아버지를 만난 자식들마냥

한없는 기쁨으로 설레이였다.

그이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저마다 그이의 품에 안기려고 무진 애를 쓰는 애육원원아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친부모의 정을 주시며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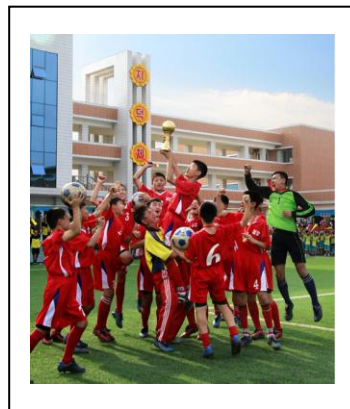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원아들이 쟁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것을 보니 아이들의 밝은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도 지지 않도록 원아들을 잘 돌봐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2015

부모없는 아이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친부모의 정을 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은 정녕 한 나라의 령도자만이 아닌 한 가정의 다심하고도 웅심깊은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주체 105(2016)년 7월 어느날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근 당에서 원아들을 잘 키우는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의 보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킨것은 우리가 지난

3~4 년동안 이룩한 성과들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전국도처에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니 사람들이 이제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세상이 되였다고 말한다는데 원아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원아들은 모두 나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나는 아들딸부자가 되였다고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혈연의 정은 학생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아이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조국의 미래를 떠받드는 기둥감으로 훌륭히 키워나가고계시는데서도 표현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후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나라의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시켜나가고계신다.

주체 101(2012)년 9월 25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2 기 제 6 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은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 년제초급중학교와 3 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 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어 새 세대들에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의무교육이다.

새로운 의무교육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모두에게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전기간 교육을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완전한 의무교육제이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우월한 무료교육제이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류형의 교육제도들이 있지만 조선에서 실시하는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와 같이 사람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후대들을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키워낼수 있게 하는 교육제도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일대 사변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도록 하자면 중등일반교육체계를 더욱 개선완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조선을 하루빨리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멋쟁이궁전, 건축물들이 하나둘 일떠설 때마다 그것이 단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나 조건을 보장해주는것으로가 아니라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기둥감들을 키울수 있는 원종장으로 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주체 101(2012)년 5 월 어느날 창전거리에 새롭게 꾸려진 경상유치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경상유치원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훌륭하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그만하면 학교전예능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나무랄데 없이 꾸려진 유치원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날로부터 50 일도 안되던 7 월 14 일 그이께서는 또다시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에도 경상유치원이 학령전어린이들의 지능계발과 동심에 맞게 꾸려진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경상유치원에 대한 현지지도는 학령전어린이교육교양사업에서 새로운 계기점으로 되였다.

새 세대들을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감들로 키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혈연의 정은 아이들의 교복과 가방, 학습장들에도 어리여있다.

특히 청소년학생들이 입고있는 교복에는 친부모도 기울일수 없는 경애하는 그이의 다심한 사랑과 은정,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학생들에게 무조건 교복을 해입혀야 한다고, 이 사업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두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학생들이 들고 다닐 가방문제에 대하여서도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주체 103(2014)년 12 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이께서는 학생소년들의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푸시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고 학생가방용천생산공정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였으며 학생용가방도안들도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이곳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짧은 기간에 가방용천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리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체 105(2016)년 1 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이 리용할 여러가지 형태의 가방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성별과 년령심리적, 신체적특성에 맞게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조선의 학생청소년들이 쓰고있는 민들레학습장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은정이 깃들어있다.

민들레학습장공장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학습장생산기지로서 전국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이께서는 학습장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그후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공장이름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충성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자신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뻤다고, 질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후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전국의 혁명학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애육원들, 장재도와 무도를 비롯한 섬초소학교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멋진 학습장들이 가슴가득 안겨졌다.

(3) 청년중시로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혈육의 정은 청년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없이 사랑하시는데서 표현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는 청년문제, 혁명의 계승자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세상에 자랑할만 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운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고 커다란 승리입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리기와 타락으로 시들어가는 청년들을 두고 전망없는 세대와 직면하였다는 가슴아픈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올 때, 청년문제야말로 천만금의 재부로도, 고도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할수 없는 인류의 난문제라는 탄식이 흘러나올 때 오직 조선에서만은 청년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

청년중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대를 이어 높이 추켜드신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은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 당 다음가는 정치조직이라고, 청년사업은 당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끝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 곳은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원쑤들과 총부리를 맞댄 최전연초소, 파도사나운 섬방어대,

찬비내리는 건설장 그 어디나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였다.

바로 그 길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값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였다.

청년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강국의 탄생은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온 누리에 선포하고 조선청년들의 존엄을 세계 한복판에 높이 세워준 력사적사변과도 같았다.

주체 101(2012)년 3 월 7 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앞으로 청년절을 크게 쇠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우리는 해마다 청년절행사를 잘 조직하여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선전하며 청년절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여나가는 조선청년들의 확고한 의지와 조직력, 단결력, 전투력을 힘있게 시위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절경축행사를 조선로동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맞이하며 경축행사기간 대표들에게 일생을 두고 추억할 최상의 대우를 해주도록 온갖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절경축행사대표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악회 《사랑하라 어머니조국을》을 관람하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진보적인류가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경모하여 마지않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조선의 청년들보다 행복한 청춘들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불굴의 청년대오,

청년맹장대군으로 자라나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 104(2015)년 한해만 하여도 무려 3 차례나 백두전역을 찾으시여 청년들에게 그 누구도 줄수 없는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거듭거듭 안겨주시며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백암군의 서두수상류에 3 개의 계단식발전소로 건설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조선의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위업을 실천으로 받들려는 불타는 충성심과 나라의 전기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열정을 지닌 청년돌격대원들이기에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처음 맡아해보지만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그리시고는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까지 1 호, 2 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까지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의 70 년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자고, 완공의 기쁨속에 이곳에서 청춘들의 대합창공연을 진행하자고, 자신께서 꼭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날 발전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다.

백두산기슭의 청년발전소건설을 당과 국가의 최고중대사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믿음에 청년들은 당창건 70 돐까지 무조건 발전소건설을 끝내겠다는 결사의 맹세로 화답해나섰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노래를 부르며 수천명의 청년들이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해왔고 전당, 전국이 지원물자를 싣고 1 000 리, 2 000 리를 달리고달려 백두산의 청년돌격대를 찾아왔다.

그리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10 년간 진행해온것보다 더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낌으로써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체 104(2015)년 9 월 13 일 완공을 앞둔 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돌격대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1 호발전소 언제쌓기를 청년절전으로 완전히 끝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전구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이런 신화는 오직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다고 하시며 이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그러시면서 청년강국의 주인인 우리 청년들은 모두 영웅청년들이라고, 그래서 이 발전소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하자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1 호발전소 언제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력으로 쌓아올린 언제이라고, 그러므로 그 높이를 결코 그 어떤 측정단위로도 잴수 없다고 하시면서 1 호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이며 청년강국의 높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행한 일군들, 돌격대지휘관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다음해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 돐이 되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 3 호발전소건설을 다음해 청년절까지 끝내겠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개를 떨쳐야 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해 10 월 3 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장에 나오시여 청년들을 축하해주시며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번쩍거리는 도시의 번화가가 아니라 인적도 없는 심심산골에 솔선 달려와 당의 뜻을 꽃피우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청년들, 스스로 《백두청춘대학》이라는 과정안을 만들고 매일, 매 시각 량심의 점수를 매기면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가는 그런 훌륭한 청년들은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자랑스러운

투쟁모습을 보면서 눈물겹도록 동무들이 고마웠고 동무들 모두를 저 하늘이 들리도록 두팔들어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조선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인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가 창조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군민청년대합창공연도 보아주시였으며 장쾌하게 터져오르는 환희의 축포, 승리의 축포를 뜨거운 격정속에 부감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완공, 정녕 그것은 조선로동당창건 70 돐 대축전을 뜻깊게 장식하는데만 그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청년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그 위대한 혼연일체의 력사가 무엇을 원천으로, 동력으로 하여 그렇듯 줄기차게 흐르고있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서사시적화폭으로 된다.

조선청년들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도발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던 2015 년 8 월사태때 일시에 조선인민군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섰으며 2016 년에는 충성의 70 일전투와 200 일전투에서 청년동맹의 전투적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오늘도 조선청년들은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맺은
혈연의 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미래를 향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4) 시대의 꽃으로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혈육의 정은 녀성들을 시대의 꽃으로 내세우고계시는데서 표현된다.

주체 105(2016)년 11 월 17 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제 6 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화원에서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여나는 우리의 녀성들과 녀맹원들에게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세상에는 그 어느 나라에나 녀성들이 있지만 조선녀성들처럼 령도자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인간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받은 녀성들은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녀성들의 존엄과 영예는 값높은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빛나고있다.

주체 101(2012)년 11 월 16 일 첫 어머니날과 더불어 제 4 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친 조선의 어머니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여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해주시였으며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제 4 차 전국어머니대회도 크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열린 제 4 차 전국어머니대회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고 부모없는 아이들도 맡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어머니들, 일편단심 당의 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군인가족들과 로력혁신자들, 일군들을 비롯한 모범적인 녀성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 4 차 전국어머니대회 대표들에게 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급의 국가표창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주체 103(2014)년 12 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2 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 2 기 제 5 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그이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전달받았다.

군인가족들이 지난 기간 최고사령관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당에 무한히 충실한 군인가족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총쥔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군인가족들이 있다고 최상의 평가와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서한을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이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그런데 떠나시는 줄로만 알았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무대로 오르시였다.

열광적인 환호로 진감하던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이어 경애하는 그이의 친근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퍼지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연설이 시작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사진촬영장에서 보고싶고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의 안해들이며 어머니들인 동지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는 동지들의 깨끗한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동지들이 지닌 남다른 혁명열의, 혁명적락관주의를 보고 대하면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크고 꼭 인사말을 전하고싶어 나왔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연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대회참가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장내는 그야말로 울음바다로 되였다.

사실 총잡은 남편들과 자식들, 병사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면서도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였고 그들의 고마움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얼굴을 붉히군 했던 군인가족들이였다.

허나 대회참가자들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였다.

그들은 그 시각 친정어머니의 다심하고 살뜰한 정, 아니 그보다 더 진한 정이 자기들의 온몸에 흘러들고있는것을 감촉하였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그칠새없는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끝으로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언제나 남편들과 자식들에게 힘이 되여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연설을 마치시였다.

또다시 울리는 열광의 《만세!》소리, 너무도 목이 꽉 메여 만세소리도 못 내고 그저 울기만 하는 군인가족들도 있었다.

참으로 이날의 감동적인 화폭은 대회참가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군인가족들,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혈연의 화폭으로 새겨지게 되였다.

주체 104(2015)년 6 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인 조금향, 림설동무들의 비행훈련을 보아주시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그이께 초음속전투기를 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시각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녀성전투비행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을 안고 창공으로 날아올라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그이께서는 녀성전투비행사들의 단독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나어린 처녀들이 정말 용타고, 하늘의 꽃이라고, 건군사에 처음으로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났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전투비행사들의 훈련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시면서 저렇게 용감무쌍한 훈련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남성들도 타기 힘든 초음속전투기를 처녀들이 단독으로 탄다는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2) 가를수 없는 정

(1) 가장 공고하고 진실한 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에 의하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사회의 정치적안정이 보장되였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공고화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과 맺으신 혈연의 정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를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진실한 정이라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과 맺으신 혈연의 정을 그대로 이으시고 그 혈연의 정으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고난과 시련을 앞장에서 헤쳐오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마음에 안으시고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정을 인민의 가슴속에 꽉 채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한없는 인정의 세계에 끌리여 인민은 스스럼없이 그이의 품에 안겨들었다.

바로 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흐르는 혈연의 정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가를수 없고 깨뜨릴수 없는 혼연일체의 대하를 이루었다.

주체 102(2013)년 6월 어느날 창성식료공장의 종업원들은 꿈같은 시각을 맞이하였다.

창성군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자기들의 일터도 찾아주신것이였다.

창성식료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산과일가공에서는 창성식료공장이 패권을 쥐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언제나 경애하는 그이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그이와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을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일해온 창성식료공장의 종업원들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온 세상을 다 안은듯 한 커다란 기쁨과 환희속에 울고 웃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시간이 그리도 짧은지,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꿈같은 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것이였다.

그이를 모시고 영원히 한자리에 서있었으면 하는것이 종업원들모두의 심정이였다. 그품을 떠나 한시도 살수 없는 인민이기에 떠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품에 저저마다 안겨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경애하는 그이의 손목과 옷자락을 부여잡는 창성식료공장 종업원들의 모습은 정녕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어낼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 모습들이였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흐르는 정은 그처럼 뜨겁고 그처럼 맑고 깨끗하기에 그 무엇으로써도 가를수가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헤여지기 아쉬워 그이의 옷을 부여잡고 감격에 흐느껴 울며 어린이들마냥 발을 동동 구르는 인민들의 모습은 창성식료공장만이 아닌 조선의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다.

배를 타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로 눈물을 쏟으며 따라서다 못해 바다물속에 뛰여드는 장재도와 무도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그들을 보시고 배에서 내리시여 어서 나오라고, 나오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모두 나오는것을 보시고서야 배에 다시 오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새해 정초에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떠나시려는 순간 어푸러질듯 달려와 경애하는 그이의 주위를 에워쌌던 어느한 공장 로동자들과 그들속에 그렇게 계시는것이 무등 기쁘신듯 오래도록 환히 웃으시며 헐치 않다고, 힘이 세다고 하시며 그들의 무랍없는 행동도 너그러이 받아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타신 뻐스를 따라 달리며 《만세!》의 우렁찬 환호를 올리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모습, 그들은 직급도, 이름과 성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오직 한가지만은 꼭같았으니 그것은 피해지역의 인민들을 위해 잠못 이루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거듭 현지에 나오시여 오늘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마음과 순결한 충성의 열도였다.

정녕 끝이 없는 이 전설같은 화폭들은 바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열화와 같은 흠모의 분출이였으며 뜨거운 혈연의 세계였다.

하기에 로씨야 나호드까시 부시장은 병사들과 군인가족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 뛰여들어 총비서동지를 바래우는 장면은 오직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의 감정을 보여주는 화폭이라고,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일심단결은 영원할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또한 영국의 ITV NEWS 는 주체 104(2015)년 10 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일심단결의 장엄한 화폭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행사 전기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언제나 **김정은**령도자께로 집중되여있었다고, 그들이 자기의 령도자를 우러러 보여준 모습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광경이였다고 찬탄하였다.

이 세상 그 누가 만들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소개하면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령도자의 한없이 자애로운 풍모는 세상천하가 얼어붙은 겨울에도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한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하기에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지구인력과도 같은 령도자와 조선인민의 혈연적관계는 핵폭탄으로도 가르지 못한다는 진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령도자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인민이 하나의 정으로 굳게 뭉친 조선의 혼연일체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도 가를수도 없는 가장 공고하고 진실한것이다.

(2) 평범하고 가식없는 인정의 세계

원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의 기초로 된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 정을 기울이는 인간성과 인정미가 없는 인민성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였던 고상한 인간성과 인정미,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지론, 위대한 만경대가문의 인간성과 인정미를 천품으로 이어받아 체질화하고계신다.

인간을 대상하여 인간이 베푸는 사랑과 정의 력사가 수수천년이여도 인류는 아직까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같은 위대한 인간애, 고결한 인정미를 지니신 분을 알지 못하고있다.

인간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과 공장들이 일떠설 때마다 그처럼 기뻐하시며 제일먼저 찾아주시는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허리굽혀 인사도 하시고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며 귀중한 시간을 바쳐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랑의 친필도 보내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성과 인정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주체 100(2011)년 12월 27일 위대한 장군님과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이날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슬픔으로 하여 눈물의 바다를 이룬 조국의 하늘로 한대의 비행기가 날아올랐다.

비행기안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한 녀성이 타고있었다. 조선인민군 4.25체육단 송구감독 신화순동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애도기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도 많고많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그의 건강을 두고 걱정하시였다는것을 아시고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였다.

몇달전인 주체 100(2011)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어느 한 종합체육관 개관식에 나오시였다.

개관식이 끝난 후 선수들의 경기를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기장밖에서 경기지휘를 하는 녀성감독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흐리신 안색으로 감독의 얼굴에 병색이 돈다고 말씀하시였다.

해당 일군들로부터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과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알면서도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훈련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훌륭한 동무라고, 그의 병치료를 잘해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거듭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신화순동무는 관록있는 의료집단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였다.

허나 위대한 장군님의 뜻밖의 서거소식에 접한 후 그의 병세는 심히 악화되였다.

애도기간인 12월 22일 신화순동무의 병치료정형을 몸소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를 지체없이 외국의 이름있는 병원에 보내여 치료받도록 하라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신화순동무는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일군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출발을 늦추어 위대한 장군님을 바래워드리는

영결식에 참가하고 떠나겠다고 거듭 애원하였다.

그러는 신화순동무의 손을 꼭 잡고 일군들은 그를 하루빨리 떠나보내라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어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였다.

민족대국상의 나날에 꽃펴난 이렇듯 가슴뜨거운 은정에 대한 이야기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상한 인간성과 인정미를 전하며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 103(2014)년 11 월에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사업소에 도착하시면서부터 사업소구내에 물고기비린내가 꽉 찼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하륙장에서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만선기를 날리며 부두에 들어선 고기배에 오르시여 선창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시고서도 정말 기분이 좋다고, 년간에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린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야외물고기가공장에서 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물고기선별작업을 하는것을 보시고 가족들까지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떨쳐나섰다고, 수산사업소 종업원가족들이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성실한 땀을 바치는것은 좋은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수산사업소 종업원가족들에게 과분한 평가를 주신 그이께서는 가공장에 빙 둘러앉아 선별작업을 하는 그들가까이로 다가가시여 수고한다고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엄지손가락을 펴보이시며 수산사업소의 종업원들과 가족들은 모두가 투철한 당정책관철자, 애국자들이라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본태이라고 격조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문화회관쪽으로 가시면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고있는 종업원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몸소 수고들한다고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뜨거운 인사를 보내주시고서도 모자라신듯 또다시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수산사업소 일군들의 가슴은 쩌릿해졌다.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기 위해 애쓰는 종업원가족들의 수고에 대한 진정이 그 짧고 소박한 인사말에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바로 령도자는 인민의 진정을 알고 인민은 령도자의 진정을 아는 그 혈연의 세계가 그렇듯 감동깊은 화폭을 펼칠수 있었던것이다.

주체 102(2013)년 1 월 1 일 아침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인민들모두에게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그 모습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첫 신년사를 하시였다.

《나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사는 사람들사이에 오가는 가장 초보적인 례의범절로서 담고있는 의미는 매우 넓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인민에게 하시는 인사처럼 그렇듯 따뜻한 정이 넘치고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는 인사는 찾아볼수 없다.

그 인사는 흔히 다른 나라 정치지도자들이 공식석상에서 하는 외교적인 인사와 전혀 다른것이였다.

마디마디 인민에 대한 진정이 뜨겁게 맥박치는 인사,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그런 인사였다.

자기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는 령도자의 진정어린 인사이기에 그렇듯 인민들의 심장을 후덥게 한것이며 눈물을 머금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게 한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조선인민의 새해는 더 류다르게 밝아왔고 류다르게 흘러갔다.

새해 첫 아침이 밝으면 온 가족이 의례히 TV 앞으로 모여앉았다. 해마다 경애하는 그이의 따뜻한 축복을 기다렸고 그 축복속에 더더욱 밝고 창창할 미래를 그려보았다.

그날들을 조선인민은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주체 103(2014)년 1월 1일

《나는 지난해에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당을 따라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체 104(2015)년 1월 1일

《나는 혁명적신념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의 존엄과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찬 새해 2015 년을 맞으며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주체 105(2016)년 1 월 1 일

《나는 영원히 당과 주체의 한길을 걸어갈 억척의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정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주체 106(2017)년 1 월 1 일

《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당과 사상도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여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웃으며 헤쳐온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립니다.》

바로 이렇듯 따뜻한 인사, 따뜻한 축복을 받은 인민이기에 조선인민은 희망찬 새해에 또다시 비약하며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쳐나가실 경애하는 그이의 웅대한 설계도를 자자구구 심장에 쪼아박고 새로운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는것이다.

새해를 맞으며 하시는 신년사에서뿐이 아니다.

조선소년단창립 66 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와 제 4 차 전국로병대회,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들마다에는 인민들에게 하시는 그이의 인사가 뜨겁게 담겨져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축하전문, 국제경기에서 우승한 체육전사들에게 보내주신 축하전문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인민에게 보내주신 많은 축하문과 감사문들에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정이 차고넘친다.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드리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사, 바로 이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뜻과 정으로 뭉친 혼연일체의 대화원속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감동깊은 인사이다.

주체 103(2014)년 12 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드넓은 뜨락에서도 격정의 파도가 굽이쳤다.

폭풍같은 만세를 터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에 어푸러질듯 달려가 안긴 방직공들, 헤아릴수 없는 그 인파속에는 신발이 벗겨지는줄도 모르고 달려나온 처녀들도 있었고 어느새 그이곁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그이의 팔을 꼭 부여잡은 로동자도 있었다.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의 한이 될듯싶어 그야말로 막무가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속에 그렇게 함께 계시는것이 무등 기쁘신듯 태양같은 미소를 머금으시고 오래도록 환히 웃으시였다.

바로 령도자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찍은 이날의 사진화폭들을 조선뿐아니라 세계각국의 신문, 통신들이 앞을 다투어 전하였다.

력사의 기록이고 그 시대 인민의 얼굴, 웨침이기도 한 사진, 다채로운 생활의 시공간을 력사의 갈피에 고착시키며 인간의 감정정서에 깊이 침투해온 사진의 력사가 흘러 어느덧 백수십년을

헤아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무수한 사진의 갈피속에 령도자와 인민이 그리도 스스럼없이 어울려 찍은 사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민들을 쉬임없이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발걸음과 더불어 온 나라가 그대로 기념촬영장이 되였고 이 나라의 수많은 병사들과 로병들, 아이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과학자들과 청년들이 그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새집들이한 가정들을 찾으시여서는 마치 가족사진같이 한가정의 애틋한 정이 넘치는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고 2 만여명이나 되는 소년단대표들을 위하여서는 무려 20 번이나 자리를 옮겨가시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의 품에 온 나라 인민이 무랍없이 안겨들었다.

장재도방어대를 찾으신 그날에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태여난지 6 개월밖에 안된 정항명어린이를 따뜻이 품에 안으시며 자신께서 이애를 안고 사진을 찍어야 출장중에 있는 애아버지가 기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시였다.

라선땅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더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념사진을 찍고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만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일 때까지 무려 1 시간 30 분동안이나 기다려 사진촬영의 력사에 없는 숭고한 화폭을 남기신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인류력사에 사진이라는것이 생긴이래 이런 특이한 기념사진은 아마도 처음일것이다. 이것은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숭고한 혈연의 화폭이다.

바로 그 숭고한 화폭들가운데는 준공을 앞둔 인민야외빙상장에서, 경상유치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고 찍으신 사진도 있고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군인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도 있으며 물고기비린내 풍기는 랭동창고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찍으신 사진도 있다. 경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황금해력사의 창조자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떨친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기발이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하여 기념촬영을 하였다.

바로 그 화폭속에 새겨진 령도자와 인민의 모습은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한가정의 모습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올린 편지들을 언제나 뜨겁게 받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새겨주시며 인민들과 혈연의 정을 나누신다.

지구상에 문자가 출현하고 편지를 통한 서신거래가 발생한지도 수백수천년을 헤아리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평범한 사람들과 편지를 받고보내며 사랑과 정을 그처럼 뜨겁게 나눈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어느 한 문필가도 토로하였듯이 그 친필들은 인민들에게로 오는 그이의 발걸음소리였고 인민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는 손길이였으며 이 나라 인민들과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는 해빛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인민들이 올리는 수많은 편지들에 새겨주시는 사랑의 친필들가운데는 사랑과 믿음의 친필도 있고 밝은 미래에 대한 축복의 친필도 있으며 훌륭한 성과에 대한 축하의 친필, 고무와 격려의 친필도 있다. 비록 한문장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있는 친필도 있고 여러줄이 넘는 친필도 있으며 머리 흰 항일의 로투사에게 보내시는 친필도 있고 철부지 유치원꼬마에게 보내주신 친필도 있다.

친필을 주신 대상과 나이, 내용은 다 각이하지만 글줄마다 담겨져있는 다심하고 살뜰한 정은 하나와 같다.

인민은 령도자께 스스럼없이 편지를 올리고 령도자는 그 편지에 한자두자 친혈육의 심정으로 친필을 새겨주는 이 화폭이야말로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령도자와 인민의 고결한 인정의 세계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 102(2013)년 12 월 어느날 황해북도에 있는 중등학원원아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해에만도 여러차례나 선물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그이께 꼭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도안의 원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그들은 편지에 뜻깊은 12 월 24 일을 맞으며 또다시 그이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가슴한가득 받아안은 자랑과 함께 자기들을 뜨겁게 안아주시는 그이의 친부모보다 더한 사랑과 정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는데 대하여 또박또박 적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그이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그이만을 따라 피는 충성의 해바라기가 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선물전달식을 진행한 정형을 원아들의 편지와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기쁨에 겨워 울고웃는 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첨부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보고올리였다.

편지와 사진을 받아보신 그이께서는 몸소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정녕 이 감동깊은 화폭은 이 세상 그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화폭,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조선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화폭이다.

(3) 영원한 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과 맺은 혈연의 정은 무한대하고 영원한 사랑과 충성의 감정이며 이로 하여 가장 공고하고 가를수 없는 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이 우리에게 바치는 정이란 참말로 깨끗하고 구김살이 없었다. 만일 그 정을 강물이나 시내물에 비길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청류>나 <옥류>라는 이름을 붙이고싶다. 그 정은 길이로써도 잴수 없고 무게로써도 가늠할수 없는 무한대한것이다.》

사랑과 믿음에 보답이 따르는것, 이것은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도덕의리이다.

바로 조선인민은 자기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육친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당과 수령의 믿음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혁명적의리로 여기고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삶을 빛내여주는 사회주의요람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빛내이는것을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여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들의 삶을 인간의 가장 참된 삶, 영생하는 삶으로 빛을 뿌리도록 내세워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정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주체 101(2012)년 1월 15일 금골의 채광공인 박태선동무는 막장에서 작업하던중 뜻밖에 떨어지는 큰돌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신입채광공을 밀쳐버리고 결국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되였다.

《쿵－》하는 소리가 막장을 울리였다. 3t 이 넘는 큰돌이 채광장바닥에 떨어진것이였다.

박태선동무는 이렇게 생을 마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2 살 한창나이였다. 떨어지는 큰돌을 먼저 발견하였을 때 그는 한걸음만 뒤로 물러섰으면 살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지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던것이다.

박태선동무의 영웅적소행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훌륭한 인간이라고, 이 동무의 영웅적소행을 잊지 말며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의 값높은 삶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도록 희생된 동무의 몫까지 합쳐 더 많은 일을 하자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금골의 이름없는 채광공이였던 박태선동무를 공화국영웅으로, 애국렬사로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였으며 그가 일하던 소대를 《박태선영웅소대》로 부르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혁명학원에서 키우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안해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해당 보건기관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였다.

30 대의 한창나이에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분조장이였던 리창선동무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에서 영생의 삶을 받아안았다.

벼랭상모판씨뿌리기에 필요한 흙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조원들과 함께 작업하던 리창선동무는 당장 무너져내릴듯 흙벽에 금이 가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즉시에 그는 《비키라!》고 소리치면서 번개같이 몸을 날려 흙벽을 등지고있던 3 명의 녀성분조원들을 한꺼번에 밀쳐버리고 생을 마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의 영웅적소행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박태선, 리창선동무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였던 그들이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시대의 영웅으로 가장 값높은 영생의 언덕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그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는 인민들을 더 큰 위훈과 혁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주체 101(2012)년 6 월 11 일 새벽 무더기비로 하여 집이 무너질수 있는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 14 살 나는 한현경학생은 방안벽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비닐로 물기 한점 들어가지 않게 품에 안고 사품치는 물속에서 희생되였다.

한현경학생의 최후는 이 땅의 어머니들은 물론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였다.

허나 그보다 더 심장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졌으니 그것은 바로 한현경학생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혈연의 정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의 소행을 더없이 귀중히 여겨주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한현경에게는 **김정일**청년영예상을 그리고 그의 부모와 담임교원, 학교의 청년동맹, 소년단일군들과 교장에게는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현경이가 공부하던 학교를 한현경중학교(당시)로 명명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녕 나어린 한 중학생의 소행을 그처럼 귀중히 여겨주시며 그는 물론 그를 키운 부모들과 교원들에게까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품이야말로 이 세상 제일

따사로운 태양의 품이였다.

주체 102(2013)년 11월 1일, 10여일전 수십명의 군관, 군인들이 전투임무수행중 희생되는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용사묘로 오르는 화강석계단앞에 이르기도 전인 포장도로입구에서 차를 멈춰세우시였다.

희생된 용사들의 령전에 차를 타고 갈수는 없다. …

그러시고는 몸소 준비하여가지고 오신 흰꽃송이를 손에 드시고 용사들의 묘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계단을 오르시여 해군기와 해군모표장식이 새겨진 용사묘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손수 들고 오신 흰꽃송이를 증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용사들의 돌사진을 차례차례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이윽하여 얼마나 끌끌한 전사들인가고,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하시며 북받쳐오르는 비감을 애써 누르시는듯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미여지는듯 한 아픔속에 용사들의 돌사진을 한사람한사람 마지막까지 다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묘를 내리시였다.

그런데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계단을 내리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시더니 다시금 용사묘를 바라보시면서 용사묘에 묘주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합장묘이기때문에 묘주가 따로 없다는 한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생각깊은 안색으로 다시 몇걸음 계단을 내리시다가 돌연 돌아서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무엇인가를 부정하시듯 손을 내저으시며 결연한 음성으로 합장묘라고 하여 묘주가 없다는 법은 없다고, 용사묘에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이들의 묘주는 최고사령관인 내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예로부터 묘주는 먼저 간 사람의 친혈육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

40 명 용사들에게도 다 자기의 친부모, 친형제, 친혈육들이 있다.

그러나 희생된 40 명 용사들모두의 묘주가 되여주시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은 순수 최고사령관으로서 떠나간 전사들에 대한 도덕의리적인 의무감에서 출발한것이 아니였다.

바로 그것은 떠나간 40 명의 용사들모두가 최고사령관의 전사, 전우이기 전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살붙이, 친혈육들이였기때문이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때로부터 며칠후 세상에 둘도 없는 용사묘앞에서 장례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빨찌산추도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용사묘를 돌아보는 전체 유가족들과 군관, 군인들은 불멸의 글발앞에서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묘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희생된 군인들의 묘주가 되여주시고 자신의 존함을 묘비에 새겨주시도록 하신 감동깊은 화폭은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사변과도 같은것이였다.

3.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펴주는 품

1) 인민의 당-조선로동당

(1) 당건설과 활동의 근본리념-인민대중제일주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당활동에 구현하여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펴주시는 인민의 령도자, 위대한 삶의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우고있다.

주체 106(2017)년 1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라고, 우리가 버릴수도 포기할수도 없는것이 사회주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언하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는 사회주의위업을 향도하고있는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근본리념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당들이 있어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리념으로 하는 당은 오직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인민이 바라고 인민이 리상하는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활동의 원칙적리념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조선로동당건설의 근본목적이 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리념으로 하고있다는것은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

이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원칙이다.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는 바로 조선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력력히 어려있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기념비적건축물들, 문화정서기지들을 일떠세울 때마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최대의 기준으로 삼고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하시였으며 비록 그것이 완공된 건물이라고 하여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에 조금이라도 저촉된다면 즉석에서 바로잡도록 하신다.

크나큰 슬픔이 가슴을 에이는 아픔을 안으시고도 새로 건설하는 만수교고기상점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설계가들이 인민성을 구현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게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500 석능력의 려관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고 훌륭히 일떠선 평양양로원을 돌아보시고는 평양양로원같은 건축물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바로 이것이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날과 달속에 조선로동당은 그야말로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리념으로 하고있다는것은 제품평가기준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으로 삼고있는데서 표현된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해당 제품의 질적수준과 가치정도에 둔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르쳐주신 평가의 기준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주체 98(2009)년 5 월 어느날 북방의 어느 한 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한 제품전시장에 들어서시였다.

콤퓨터화면에 현시되는 제품의 기술상태와 복잡한 기술술어들이며 도면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살펴보고계시던 그이께서는 그 우월성을 순간에 파악하시고 좋다고, 아주 좋다고 만족해하시며 기술상태가 저 정도이면 대단하다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사실 콤퓨터화상으로 표시된 제품의 기술지표들은 웬만한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리해하기 어려운것이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전문일군의 설명이 없이 콤퓨터화면만 보시고도 모든 내용을 순간에 파악하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시기에는 이런 제품을 만들자면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이 필요했겠는데 지금은 적은 로력을 가지고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다량생산하니 대단한 기술혁신이라고 다시금 치하해주시다가 문득 실지 사용자들의 반영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것과 어느 한 단위의 일군이 찾아와 제품을 보고 몹시 감동되여 돌아갔다는 사실까지 덧붙여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그가 제품을 보고 뭐라고 하였는가고 되물으시였다.

일군들은 그가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대단한 기술자들이라고 한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랬을것이라고 하시며 내가 보기에도 좋은것 같다고, 그런데 문제는 리용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한다고, 쓸 사람들이 좋다면 그것은 좋은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쓸 사람들이 좋다면 좋은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말씀하신 쓸 사람들이란 바로 이 나라의 근로하는 인민들이였다.

바로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은 제품의 평가기준은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의 요구라는것, 즉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 제품으로 되지만 아무리 기술적지표가 높은 훌륭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좋은 제품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제품평가기준은 이렇듯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의 주요전구들을 찾으시여서 조선인민의 지향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먼저 따져보시고 철저히 인민의 감정과 지향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계신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리념으로 하고있다는것은 인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고 인민들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혁명하는 목적, 창조의 목적을 두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주체 102(2013)년 9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서도 살수 있게 꾸려진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 거리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평양육아원과 애육원건설장을 돌아보실 때에도, 어느 한 식료공장을 돌아보실 때에도,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진 라선땅을 돌아보실 때에도 그리고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군인들, 인민들이 행복에 겨워할 모습을 그려보시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주체 105(2016)년 7 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롭게 전변된 평양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평양자라공장을 돌아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고, 정말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난해 한심하기 그지없는 공장의 실태를 료해하고 너무도 가슴아프고 억이 막혀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 주저앉았던 공장을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고보니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진다고,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2) 조선로동당의 당풍-멸사복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멸사복무를 조선로동당의 당풍으로 내세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해나갈것이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갈것입니다.》

주체 105(2016)년 여름 함북도 북부지구에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정형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번 수해복구전투를 통하여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 바로 이것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이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당풍은 온 나라 인민이 조선로동당의 손길을 꼭 잡고 행복의 단상에 올라서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조선인민에게는 어려울수록 꼭 잡고 시련의 광풍이 세찰수록 더 뜨겁게 잡는 귀중한 손길이 있다. 그 손길 잡으면 만리도 지척되여 걸음에 나래돋고 그 손길 놓치면 갈길을 잃은 풍랑의 쪽배가 되는 운명의 손길,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의 손길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당풍으로 되게 하시여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한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손잡아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철저히 고수해나가도록 하고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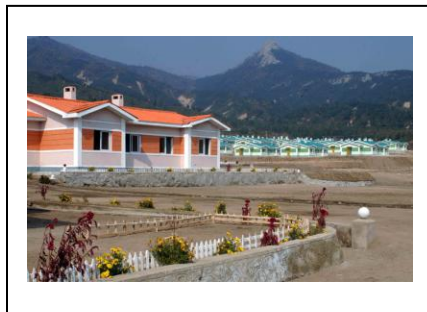
함북도 북부지역에서 엄혹한 자연재해로 하여 그 지역의 많은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던 주체 105(2016)년 9 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들이 당한 불행을 하루빨리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2016 년에 우리가 이룩한 경이적인 사변적성과들이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결정관철의 도약대로 되는가 아니면 적대세력들이 바라는대로 좌절되는가 하는것은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어떻게 치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며 전당, 전국, 전민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조선로동당의 당풍으로 되게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마음과 신뢰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였다.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뜻밖의 큰물피해가 났을 때 인민들이 집과 재산을 다 잃으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만은 목숨바쳐 보위한 사실은 조선인민이 당을 운명의 손길로, 위대한 삶의 품으로 확신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북부피해지역만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그 운명의 손길,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손길을 꼭 잡고 행복의 단상에 올라섰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당풍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요구하고계시는데서 표현된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이다.

주체 104(2015)년 10 월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다고,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선 모든 일군들이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생관을 자기의 신조로, 넋으로 만들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도록 하고계신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관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정신이다.

그이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은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군 하신다.

주체 103(2014)년 1 월 어느날 당에서 보내준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당조직들에 한자한자 써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또한 일군들이 자기 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리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해 생눈길을 헤치는 심정으로 일해나가며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하고계신다.

민족의 대국상이후 만포시인민들이 삼가 편지를 올리였을 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문제, 애로를 세심히 보살펴주고 제때에 풀어주며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당의 인민적시책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길이 꽃피워나가도록 해야 할것이라는 당부를 담으신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친필을 평양산원 종업원들의 편지에도 써주시였고 평양화장품공장 종업원들의 편지에도 새겨주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대오에 들어선 평양단고기집 료리사들도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라는 경애하는 그이의 친필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한자한자 뜻을 담아, 진정을 담아 적어보내신 친필들은 일군들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제일가는 본분으로, 의무로 간직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2) 인민의 총대

(1) 인민의 자주적삶과 존엄의 수호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군대를 인민의 자주적삶과 존엄의 수호자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여 조선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세계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우리 식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였습니다.》

총대, 혁명군대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인 조선혁명의 필수적요구이다.

조선혁명력사는 총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삶과 존엄을 굳건히 담보하여온 인민수호의 력사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하루아침에 인민의 생존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다른 나라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조선인민은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민족만대의 찬란한 앞길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야말로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인민의 아들, 참다운 인민의 아들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사실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군대마다 자기의 사명이 있다.

자기의 사명을 자각한 군대는 강철로 다져지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군대는 준엄한 시각에 사분오렬되고만다.

총대의 사명에 대한 자각, 바로 여기에 군대가 인민의 자주권과 행복을 지켜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이 달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무장력이 지닌 사명에 대하여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보위, 혁명보위와 함께 인민보위는 인민군대가 틀어잡은 총대의 기본사명이다.

인민군대는 말그대로 인민을 위한 군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과 연설, 말씀들을 통하여 총대우에 인민의 존엄과 행복이 있다는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인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총이 없는 백성은 망국노의 설음을 면치 못하며 혁명의 총대우에 인간의 존엄도 행복도 있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긴 인민이다. 총대에 녹이 쓸면 인민은 노예가 된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오직 강위력한 혁명의 총대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는것이 총대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론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인민군장병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전세대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현시기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 인민보위의 긍정적모범들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들을 비롯한 로작, 말씀들을 통하여 인민군장병들이 전화의 나날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준엄한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꿋꿋이 이겨내고 당을 따라 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갈 신념의 기둥을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세워준 전쟁로병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혁명가적풍모의 귀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준엄한 년대의 승리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시며 그들의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과 의지로 하여 인민군전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전화의 날에 차넘쳤던 조국수호, 혁명보위의 숭고한 정신이 더욱 소중히 자리잡게 되였다.

오늘 조선의 혁명적무장력은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2)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여 조선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세계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기개와 위력을 떨치고있습니다.》

예로부터 총대란 그 무엇인가를 파괴하거나 그 누구를 죽이기 위한것이였지 창조하는 총대는 없었다.

오늘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총대는 침략과 략탈, 살인과 파괴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하지만 조선의 총대는 조국수호의 무기일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창조의 위력한 보검이다.

조선의 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서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나가도록 령도하고계신다.

온 나라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던 주체 100(2011)년 12 월의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일군으로부터 이번 애도기간에 어느 한 군부대에서 주둔지역의 인민들에게 자기 단위 수산사업소에서 잡은 적지 않은 량의 물고기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때묻혀 키운 인민군대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평생 우리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장군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사업을 지도하는 첫 시기부터 인민군대가 자기는 잘 못먹고 힘들어도 인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도와줄데 대하여 시종일관 강조하여오시였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것을 보시고 인민군대에 대한 더욱 크나큰 믿음을 가지게 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나는 애도기간이 끝나면 인민군대가 인민을 돕고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려고 한다고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애도기간직후 전군에 인민을 돕고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이 내려지게 되였다.

주체 101(2012)년에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곧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시였다. 인민군대앞에 이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해주시고 인민을 도와 좋은 일을 많이 하는것을 기본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조국수호의 무기인 총대의 사명이 더욱 엄숙한 시대의 요구로 제기되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인민군대가 더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시였다.

《인민을 돕자!》, 바로 이 구호에 조국수호의 무기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창조의 보검으로서의 총대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 그대로 어린 **《인민을 돕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장병들이 하나같이 떨쳐나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글소리 높이 울릴 창전소학교와 경상유치원, 경상탁아소가 멋쟁이건물로 일떠서고 릉라인민유원지며 개건보수된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통일거리운동쎈터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흘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더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신 **《인민을 돕자!》**, 이 구호에는 인민군대가 군민대단결실현에서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될것을 바라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도 어리여있다.

평양시내의 공원들에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던 주체 101(2012)년 10월 29일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인민들에게 사소한 페도 끼치지 말고 공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한 일을 하여도 인민들에게 절대로 손을 내밀거나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여 그 지역의 물과 공기만 마실 생각만 하여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고 하시였다.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

경애하는 그이의 이 숭고한 뜻을 철칙으로 받아들이였기에 인민군군인들은 그후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을 비롯하여 인민을 위해 전개한 공사장들마다에서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지 않았으며 군민대단결의 전통적미풍을 꽃피우는데서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투장마다에서 기수, 돌격대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령도하고계신다.

군인건설자!

어느 나라에나 군대는 있어도 군인건설자라는 말은 조선에밖에 없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의 구호를 높이 추켜든 인민의 군대만이 이런 값높은 칭호를 지닐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위해서만도 무려 590 여건의 형성안들을 보아주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언제인가는 어둠이 가셔지지 않은 이른 새벽에 문수물놀이장의 20m 가 넘는 물미끄럼대 급강하탑우에서 설비시운전도 지도해주시고 마식령스키장의 첫 시험삭도에 오르시여 안전성을 확인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발기하시고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을

비행기에서도, 현장에서도 보시면서 저렇듯 강하고 충직한 전사들이 있기에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최고사령관의 뜨거운 전투적인사도 보내시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수로, 돌격대로 내세워 이 땅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는 불과 몇년동안에만 해도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났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미림승마구락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은하과학자거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과 새 세기 산업혁명의 본보기로 일떠선 수많은 공장들은 인민군대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의 정신과 투쟁기풍으로 받들며 일떠세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3) 인민의 락원

(1)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시여 조선인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신다.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조선을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로 건설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동력으로 보시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로 건설해나가는데서도 특별히 중시하고계시는 문제의 하나는 우주과학기술발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주강국건설업적을 만년토대로 하여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야 합니다.》

우주정복은 조선인민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조선인민이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우주정복의 꿈! 바로 그 꿈과 리상을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활짝 꽃피워주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 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주체 101(2012)년 12 월 12 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 호기발사와 관련한 최종친필명령을 하달하시고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나오시여 발사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거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광명성-3》호 2 호기를 실은 운반로케트 《은하-3》이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하늘로

솟구쳐올랐다.

발사후 9분 27초만인 9시 59분 13초, 드디여 《광명성-3》호 2호기는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를 통하여 조선이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당당히 겨루어 첨단을 향하여 돌진해나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고, 우리 군대와 인민도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우주강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조선인민의 꿈과 리상을 우주만리에 아로새기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쏴올리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였다.

과학으로 주체 105(2016)년 새해의 첫문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월 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

다음날인 2월 7일 조선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의 지도를 받으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 이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애국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정체이며 그이께서 직접 씨를 뿌리시고 마련해주신 민족사적인 사변이다.

세계 많은 나라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는 기술이 아무리 높은 나라라도 강한 자주적대가 없이는 도저히 실현할수 없는 일이다, 조선의 성공적인 위성발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우주개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산모범으로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격찬하였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은 조선의 과학기술의 위력과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의 위성발사가 세계의 초점을 모은것은 공화국이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모진 경제제재와 군사적위협속에서 100% 자체의 힘과 지혜, 자체의 자원과 원료에 기초하여 최첨단의 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하였기때문이다.

조선은 무변광대한 우주에 자기의 령역을 더욱 넓히고 자기의 활무대를 마음먹은대로 펼쳐나가는 권위있는 나라로 세계의 공인을 받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로 건설해나가는데서 특별히 중시하고계시는 문제의 다른 하나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주체 102(2013)년 6 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전민무장화의 구호를 들고 전체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킨것처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화할데 대한 사상은 세계 그 어느 나라 당들도, 정치가들도 제기하지 못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말그대로 특정한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활용해나갈수 있게 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그것도 보통의 지식수준이 아니라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이라는 높은 목표를

제기한것이다.

이 거창한 설계도를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대학생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지식을 배우는 정든 집으로,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일떠서도록 하시고 전국도처에 미래원과 과학기술보급실들을 꾸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에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원쑤들에게, 우리가 잘살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발전하는것을 두려워하는 온갖 적대세력들에게 조선의 힘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다.

(2) 경제강국,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경제강국, 인민생활향상에 커다란 힘을 넣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생산력발전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락원이라는데 그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특징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고계신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이 경제강국건설이라면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은 농업과 경공업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주체 102(2013)년 3 월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전략적인 문제로 틀어쥐시고 경제강국건설전반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신다.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그이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조선인민에게 더 좋은 물질문명을 안겨줄 천리마건재종합공장과 평양자라공장, 땅밑에서 《백금》을 안아올린 지하초염수개발의 완전성공과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생산공정을 완성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 보건산소공장 …

오늘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업체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과 합리적인 기업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3) 최상의 문명을 누리도록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조선인민이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문명을 누리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조선인민이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도록 하는것이 문명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리상이고 목표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인류가 수천년동안 그려오던 인류의 선진문명, 사회주의문명의 장엄한 새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문수물놀이장건설과 관련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신 형성안만 해도 113건이나 된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조선인민에게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안겨주시기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세계를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현대적인 건축물,

살림집들마다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21 세기의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나가도록 하고계신다.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명철하게 통찰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조선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빛내일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고 교육사업에서부터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제13차, 제14차 전국교육일군대회도 마련해주시여 조선을 21 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지를 잘 꾸려주고 교육자들과 과학자들의 생활조건을 풀어주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여 최상의 교육조건이 마련되도록 하고계신다.

조선인민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령도의 손길은 인민보건분야에도 어리여있다.

주체 105(2016)년 5월 새로 일떠서고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서면 우리가 최근 몇년사이에 해마다 현대적인 각종 의료봉사기지들을 하나씩 일떠세운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류경안과종합병원도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인민병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새로 일떠서고있는 보건산소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자들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치하해주시며 보건산소공장을 세계에 둘도 없는 공장으로 건설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하나만 놓고보아도 보건분야에 돌리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은 외국인들은 하나와 같이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녀성들의 보금자리, 녀성들의 천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훌륭한 의료봉사기지에서 치료를 받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녀성들만이 누릴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조선인민에게 세상에 부러운것없는 사회주의만복, 가장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의 손길이 있어 조선에는 사회주의문명개화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지고있다.

(4) 정치사상강국, 사회주의대화원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조선인민을 정치사상강국의 존엄높은 인민으로 키우시고 사회주의대화원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정은 사람들을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는 과정이다.

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 문화건설의 성과여부도 사람,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의 인민답게 강의한 정신력으로 자기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고 우리 사상, 우리 위업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웠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인민에게 베푸시는 최대의 사랑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사상정신적량식을 주어 이 세상에서 제일 정신력이 강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견지하여오신 주체의 사상론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조선인민을 정신력이 강한 인민으로 키워나가고계신다.

주체의 사상론, 이 위력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랑과 정으로만 조선인민을 안아일으키신것이 아니다. 사상을 주고 의지를 주시였으며 백년대계의 투쟁전략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가 경탄하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사상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시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계신다.

총대중시, 청년중시, 과학기술중시도 사상중시에 달려있다는 지론을 안으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상정신력을 중시하고 전체 인민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의 사상정신적힘을 총발동해나가시는것이 그이의 혁명방식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 103(2014)년 1 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그날부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신념의 메아리가 온 나라 강산을 울리고 소나무처럼, 백옥처럼, 참대처럼 살려는 조선인민의 의지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 차넘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백두산에 오르시여 일군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오늘 조선에서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이 백두산지구에 대한 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을 자강력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으로 되도록 하고계신다.

주체 104(2015)년 10 월 어느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새로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끓어번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낼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그이께서는 몸소 지하전동차의 시운전과정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자체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개발할수 있은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점밑에 투쟁한 결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강력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연혁사에만 새겨진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과 평양곡산공장, 평양자라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을 찾으시여 이곳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국산화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나라의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그이께서 조선인민을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려 기울이신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다.

앙양된 인민대중의 정신력앞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도, 비렬한 내부와해책동도 맥을 추지 못하였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특대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게 하였다.

주체 105(2016)년에 사회주의대화원에서 특대사변이 터졌다.

그때 함북도의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은 큰물과의 결전을 벌리고있었다. 그들은 불어치는 돌풍과 쏟아지는 무더기비속에서도

가정들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집안으로 흘러드는 물을 보면서도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수호전에로 과감히 나아갔다.

그후 항일의 원군, 원민전통이 창조된 력사의 땅 두만강기슭에서 군민대단결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려는 병사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지향에 의하여 꽃펴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간고한 행군과정에 한지에서 밤잠을 자는 군인들을 위해 자기 집의 담요와 이불을 들고나온 녀인들도 있었다. 철없는 아이들까지도 재해지역의 공기와 물만 마실수 있다는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날마다 시원한 샘물을 길어왔다. 자기들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다하고싶은것이 재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이였다.

2016.11

2016.11

2016.11

앞으로 조선인민이 헤쳐가야 할 혁명의 천만리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인민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가장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있다.

위대한 인민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정신세계, 불굴의 기상을 그대로 닮은 조선인민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천만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는 불굴의 정신력이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맺 는 글

지금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사회주의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예로부터 꽃이 곱고 그늘이 좋고 열매가 달고 향기로운 나무밑에는 오라는 광고를 안해도 사람들이 누구나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였다.

오늘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온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조선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인민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사회주의를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고계시기때문이다.

령도자는 자신을 인민의 아들이라 하시며 인민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어버이라 부르며 충성다해가는 일심단결의 나라, 인민의 나라!

세계는 조선이 세계굴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억대의 자원을 발밑에 딛고 전도유망한 대부대의 인재력량을 가지고있으며 반세기를 다지고다져온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의 무기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발전가능성이 제일 큰 나라라고 평하고있다.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이 일심단결의 위력이 바로 강성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기약하는 기본요인인것이다.

머지않아 세계는 위대한 인민의 아들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이 어떻게 자기의 힘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류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